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10차 정기회의 안건지

일시 4/12(수) 13:3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참석 김기민, 김희자(부의장), 박현숙, 배정학, 이종안, 전미희, 황선영, 홍수만 등 8인

위임 고경남, 김경서, 김정연, 김종환, 김태석, 박정근, 유제훈, 이선영, 차정화, 최해숙 등 10인

기록 김기민(간사)

- 성원 확인 (명)

재적	27	출석	8	위임	10
----	----	----	---	----	----

※ 준비위원 재적 총원의 과반(14명 이상) 참석으로 회의 성원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3/28(수) 9차 정기회의록 (붙임)

- 현황 공유

- [재정회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원) *4/11(화) 기준

구분	수입	지출	잔액
1월	210,000	32,300	177,700
2월	190,000	52,520	315,180
3월	120,048	93,700	341,528
4월	0	20,000	321,528
합계	520,000	198,520	321,528

- [회의 출석현황 및 회비 납부내역](#) (붙임)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관련 현황 공유 (홍수만)

- 서울시 입장에서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련 입장을 구청에 전달하고

제출 계획서를 반려하여 조정 요청했다고 함.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과장 전화통화 내용 전달)

- 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분명 문제지만,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은 조정/보완을 거쳐 진행될 것임. 조정 과정에서도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지 논의 필요.
- 현재 협의회가 민간 단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회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협치 정신에 볼 때 바람직할지 고민해야 할 것. 구청에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단위를 포괄해야 하는 입장이 있음. 협의회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 구청 은현기 팀장은 사업계획 조정 과정에서 협의회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옴. 민관 TFT 협의회 몫으로 2인 참여 가능하다고 함.

- 안건

- 성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참여 여부 논의

- 현황 공유 : 성북구청이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을 서울시가 반려, 지역사회 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것을 권고함.
- 협의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에 참여한다면 예산 지분이 있는 것인지? (이종안)
 - 예산이 아닌 발언권이 있는 것이다. (홍수만)
 - 실제 참여 규모는 기존안보다 축소된다고 하지만 당연직 위원이나 구청 측에서 조직한 위원들이 많으니 협의회가 들어가다고 해도 발언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종안)
 - 구성 명단을 보면 모두 구청 입장만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TFT이고, 본 계획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 구성한 것이지, 협의체 안에 의사결정 구조의 형태는 아니라고 본다. (전미희)
- 송민기, 김종건 준비위원님도 계신데, 구청측에 우호한 입장을 가진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떤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는 반대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밀어붙이면 이건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닐지. (이종안)

- 김종건, 송민기 준비위원님은 두 가지 멤버십을 가족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전미희)
- 그 분들은 알고 계셨으면서도 협의회 참석하셔서 한 번도 언질을 주신 적이 없다. (이종안)
-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혁신을 추진하자는 단위인 것. 이종안 준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 본다. 그럼에도 그 구조에 안에 들어가서 조정과 타협 시도를 거치는 것과,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협의회는 유리한 카드가 있다. 초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수만)
 -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회가 의견 제시를 하고,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그 과정이 하나하나 협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방관할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협력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전미희)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하는 단위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본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고 제시할 수 있다. (홍수만)
 - 밖에서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닌, 안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전미희)
 -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내심 갖고 잘 온 것 같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잡지 않을까. 밖에 있으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같이 활동하면서 목소리 낼 건 내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협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자. (김희자)
 - 우리도 그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를 설득해야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 하는 과정이었고, 구청은 구청 차원에서 하는 과정이 있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이 두 곳이 하나로 모여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미희)

- 우리가 협치성복을 대표하는 단위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구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름길로 갔다. 이런 뒤통수 맞을 일이 또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종안)
- TFT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을 볼 때 우리가 앞서서 지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희자)
- 협의회 대표단이 TFT에 들어가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현숙)
-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이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그런 변화를 바라는 것도 욕심인 것 같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고민할 지점이다. (홍수만)
-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김희자)
- 구청이 갖고 있었던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과 협의회 시민협력플랫폼이 두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구청은 협의회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민간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고, 협의회는 그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단위들을 계속 협의회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물론 지역사회혁신계획 진행하면서 협의회가 아닌 구청 측으로 집중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는 한다. (전미희)
- 구청은 규모있는 단체장들을 주로 섭외할 것이다. 협의회는 소수 단체, 외곽에 있는 단체들을 협의회가 함께 손 잡고 가야 한다. 그럼 외연이 확장되고 힘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 거버넌스 조직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임기가 있어 언젠가는 그 단위를 떠나게 될 건데, 그 분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존 관 조직, 마을계획단 같은 사업을 통해 조직된 곳들에 참여한 주민분들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활동할 공간이 없어지는데 협의회가 그 공간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고 본다. (홍수만)
- 이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빠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종안)
- 이번을 계기로 어떤 미션을 갖고 협의회에 참여하셨는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활동 과정에서의 변수 때문에 의욕을 잃고 나갈 것이라면 설령 남아 계신다고 해도 언젠가 상황이 생길 때 또다시 흔들리실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의 의지나

역량을 가늠해보고 지속하기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과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홍수만)

- 그 동안은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 협력을 중앙 단위의 시민단체가 해왔다. 지역 차원에서는 더 섬세해야 한다. 기존 중앙 단위 단체들이 지역에서 협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2010년 이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권위원회 별 위원회를 다 만들었지만 관변단체, 직능단체의 장들 이른바 명망가들만 민간을 대표하여 행정과 파트너십을 맡아왔다. 행정은 민간에 적절한 권한을 분담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지금까지 행정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또다른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칫하면 우리가 고민했던 협치는 실종되는 상황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충분히 염두하고 긴장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전제로 민관 TFT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배정학)
 - 기존 관변, 직능단체 분들은 명예를 중요시한다.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활동 조직, 개인들은 시도하다가 안되면 계속하지 못하고 흩어진다. 그래서 결국 늘 그 분들이 남게 된다. 협치도 지금 지방자치, 민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전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끄럽게 해야 한다. 기존의 공고한 성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협의회가 해야 한다고 본다. 우려되는 상황을 보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미희)
 -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며 벽이 높다는 걸 실감했다. 행정은 민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함께 가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공고한 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 삼아 고지로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깨부순다 생각으로 가면 오히려 스스로 나가떨어진다.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홍 의장님 말씀처럼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기댈 곳 없는 모임, 단체들에게 협의회가 기댈 곳이 된다면 지역 안에서 역할 할 수 있지 않겠나. 참여하자. (김희자)
 -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시하기 어렵다. (전미희)

- 지금까지 준비위 활동을 해온 분들, 임원 활동을 해온 분들을 믿는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준비위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현숙)
 - 비판적 지점을 마음에 간직하고 TFT에 참여하겠다. (홍수만)
 - 민관 TFT 참여하기로 함.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창립총회 준비
 - 일정 : 5/24(수)
 - 장소 :
 - 초대명단 작성 : 내빈 / 참석자
 - 세부사항은 창립총회 준비팀에서 실무 진행함.
 - 추진 일정
 - 실무 준비
 - 분과 구성
 - 분과 조직 완료
- 협의회 자체 사업 추진 및 활동을 위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신청서 제출
 - 신규 단체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 ~7/31(월)
 - 창립총회에서 사업신청서/계획안 승인 받아야 함
 - 임원단에서 신청서/계획안 만들어 준비위 보고.
 -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위해 협의회 단체대화방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면 어떨까. (이종안)
 - 현실적으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위가 성북구 내에 많지 않다. (홍수만)
 - 사업신청서 1차 검토 5/10(수) 준비위 12차 정기회의
 - 참여 단위 : 신청 자격 조건 상 법인이 포함되어야 해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모법인인 함께살이사회적협동조합이 꼭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봄.
- 회비 각출 지속 여부
 - 현재 준비위 회비 현황 : 잔액 321,528원
 - ※ 세부 내역은 안건지 상단 재정 수입/지출 현황 참조
 - 회비 납부가 저조해지고 있는 상태. (* 납부 현황 붙임 문서 참조) 이후 회의 다과비 및 창립총회 준비비로 회비 잔액 사용하고 준비위

단계에서는 더이상 회비 납부하지 않을지, 단체 설립 이후 회비 납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납부할지 논의 필요.

- 이미 모인 금액도 있고, 민관 TFT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니 총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납부한 것으로 창립총회까지 치루고, 이후 정식 발족하면 회비 각출하면 좋을 것 같다. (이종안)
- 소속감을 갖는 차원에서라도 얼마간이라도 회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 (김희자)
- 창립 총회 전까지 준비위원 회비 납부하기로 함. 회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대화방에서도 납부 안내 및 독려할 것.

- 기타

- 다음 회의

- 일정 : 4/26(수) 13:30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예정)
- 안건 : 창립총회 준비